

미국 인상기

나운영

군맹평상群盲評象이란 말이 있다. 소경 다섯 사람이 코끼리를 어루만져 보고 가로되 코끼리는 기둥 같다느니, 담벼락 같다느니 말했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

26일 동안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그중 몇 가지만을 털어놓고 싶다.

첫째는 가족계획에 대한 이야기이다. 워싱턴은 물론이고 보스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어디를 가나 흑인이 유난히도 많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색적 화장과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다.

백인은 안 낳는 가족계획을 하는데 반대로 흑인은 낳는 가족계획을 하니 이러다가는 50년 안에 미국은 거의 흑인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진다. 그것도 흑인끼리만이 아니라 백인 여자와의 혼혈아가 나날이 늘어만 간다니 흑백 문제가 자연 해소될 날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둘째로 로스앤젤레스는 거의 한국의 식민지(?)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민국에 등록된 한인이 5만 명에다가 등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3만 이상 된다고 하니 말이다. 영어를 한 마디도 몰라도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한인수도 많고 음식점까지 없는 것이 없다. 공부하러 온 유학생 중 약 1할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이니 나머지는 사업 또는 노동을 하고 사는 셈이다. 이렇게 한 도시에 몰려 들고 있는 까닭에 행여나 추악한 한인의 모습을 드러낼까 염려가 되었다.

셋째로 하와이는 참말로 일본의 식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미국 본토와 달리 흑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 원주민과 백인이 끼어 사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음악이다. '하와이언 기타' 자체가 매력이 있지만 이것이 원주민들의 타악기와 함께 연주될 때 매우 이그조틱한 무드를 조성한다. 한편 호놀룰루에 있는 하와이 대학교의 East-West Center는 동서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는 큰 뜻을 지니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넷째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모두가 완전 개방식이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서고에 출입할 수 있고 또 그 책과 레코드가 많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례를 든다면 보스턴대학교 음악대학 도서관에 레코드만 2만 장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에 있어서의 학교 공부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참말이라는 점을 절감했다. 한편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몇몇 진서, 희서 외에는 낡은 책,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대부분이고 신간 서적이 너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장 찢어진 것이라든가 사진을 면도 칼로 도려낸 것이 허다한 실정이다 보니 완전 개방식이란 요순시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다름이 없는 느낌이니 한심하다. 어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법을 모르고 있지 않나 싶다. 그곳 학생, 교수, 사회인들이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무언의 교훈을 받았다.

다섯째로 서점 이야기다. 가는 곳마다 서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전문서점이 많은 데에는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뉴욕에 있는 G.Schirmer에 들어가니 넓은 방안에 한 쪽 벽에는 이론 서적이 부문별로 진열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악보가 역시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레코드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도 여기서 무려 세 시간을 찾아 헤맸는데 그 수량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희귀한 것이 또한 많은 데는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것만 같았다. 나는 여기서 25여 년 동안이나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책을 구했으니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우리나라의 음악인들은 참으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책도 없고, 악보도, 레코드도 없고—혹 악보는 있으나 레코드가 없는 경우, 레코드는 있으나 악보가 없는 경우—이런 가운데서 공부를 하기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음악에 관한 한 아마 누구보다도 많은 책과 악보와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나로서는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선진문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끝으로 외국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경화 정」의 나라 사람이라고 묻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다. 그의 연주를 들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경화 양을 평가하는 것보다 몇 10배 이상 그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참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인간 국보라는 종래의 내 신념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다.

<1974. 8. 월간 중앙>

[부록] 국제문화교류란?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손으로 가리고 「코리아!」를 연발하면서 당당히 일착으로 골인했을 때의 그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소련 땅에서 열린 콩쿠르요, 거의 소련 사람들로 구성되다시피 한 심사위원들 앞에서 우리 정명훈이 2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소식이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정명훈이 예선에 통과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을 때에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었는데 드디어 1등이나 다름이 없는 2등을 했으니...

정경화, 정명훈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함으로써 한국을 크게 빛내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혹 그들 자매가 꼬마 동생을 억지로 끼워줘서 피아노 트리오를 가끔 하는 것이나 아닐까 추측해오던 터였는데 이렇게도 크게 성장했으니 우리들의 악의 없는 추측이 인식 부족에서 혼 소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더욱 기쁘기 한량이 없다. 이는 비단 정명훈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자랑이요, 동양 사람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피아노 트리오라고 하면 「카잘스 트리오」(코르토, 티보, 카잘스)와 「백만 달러 트리오」(루빈스타인, 하이페즈, 피아티고르스키)가 유명했었다. 이제는 정명훈이 어머니 이원숙 여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나 보다. 명훈, 경화, 명화가 각각 독주자로만 세계를 누비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정 트리오」로도 한국을 빛낼 날이 오고야 말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국제문화교류란 제나라의 것을 남의 나라에서 발표하는데 참뜻이 있는 법이니 앞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작품도 한 곡씩 연주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더욱 자랑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바라고 싶다.

(1974. 7. 21 주간한국)